

영아에 대한 어머니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황 현 주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본 연구에서는 영아(1개월-24개월)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 애착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특별히 한국어머니의 자녀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전통문헌들 속에서 양육자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나타낸 문헌들을 선별하여 한국적인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 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또한 오늘날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이론적·잠재적 구성개념과 문항들을 도출하고, 어머니 애착 척도에 대한 일련의 타당화 과정(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거쳐 영아에 대한 한국적 어머니 애착 척도를 제작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한 결과, 417부의 자료가 본조사에서 최종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어머니 편에서의 애착을 다루었으며, 아울러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 과정에서 생물학적 보편성과 함께 문화적 독특성을 고려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어머니애착, 척도개발, 타당화, 신뢰도, 타당도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강사 (E-mail : urieunbin@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I. 서 론

애착이란 영아와 주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동물행동학적 관점에서 이 정서적 유대감은 일반적인 대상에게 의지하는 의존성과는 달리, 특정한 개인과의 지속적인 애정적·정서적 유대이며, 종(種)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형성되어진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대상이 아닌 한 특정 개인과의 밀접한 관계인 애착은 다른 동물에 비해 초기에 주 양육자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인간 종 특유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체와 더 나아가 종의 종족보존을 위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물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 이론들이 애착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금씩 뜻을 달리하고 있지만,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에 특정 대상과 서로 밀접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아동기의 사회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발달영역들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기에 까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즉 과거 영유아의 생존과 보호기능으로서만 인식되어 왔던 애착이 이제는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자아인식, 우울증, 사회성, 리더십, 인지발달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입증되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발달심리학과 아동학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의학, 그리고 상담심리학 영역에 이르기까지 애착에 대한 관심은 여러 학문 영역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은 내적 실행모델이라는 이론적 개념과 표상을 통한 측정도

구 개발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특히 “낮선 상황”과 같이 기존의 영아기 애착 행동 관찰연구에서 표상을 통한 영아기 이후의 애착측정도구 개발은 기존의 영아의 애착 발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애착은 영아기에 나타나는 발달적 특성에서 벗어나 전생애적인 관점에서의 애착으로 확대·발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연구의 다학문적 관심과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주 양육자, 즉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발달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에 대한 가장 주된 원인은 Bowlby가 어머니와 영아의 밀접한 정서적 유대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결속만을 애착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어머니 편에서의 아동에 대한 결속은 애착이 아닌 양육자의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의 양육체제로 개념화함으로써 (Ainsworth & Bell, 1977), 그동안의 애착연구는 대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애착연구로만 한정되어졌다. 심지어 성인애착측정도구의 개발로 애착의 전생애적 개념이 보편화 되어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애착연구는 부모나 교사와 같이 성인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Bowlby가 애착을 자기 자신 보다 더 강하거나 현명하게 지각되는 타 개체와 한 개체 간에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 즉 보호 요인으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즉 Bowlby는 애착을 “영아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하는 밀접하면서도 친밀한 정서적 결속”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호적 기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영아애착의 핵심개념인 보호적 기능은 주 양육

자에 대한 영아의 접근추구나 접촉유지와 같은 애착행동과 탐색행동 간의 조절인 안전-기반(secure-base)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Bowlby (1982)에게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애착하는 것은 성인인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기에, 부모의 자녀 애착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병리적 관계의 징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Hinde(1979)는 사회적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쌍방적(dyadic)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나타나며, ‘사회적 유대(social bond)’라는 용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 연결된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애착을 아동 한쪽 측면에서만 개념화한 Bowlby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Bowlby와 Ainsworth는 아동과 주 양육자 두 사람이 공유하는 쌍방적 프로그램의 한쪽을 ‘애착’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양육자의 민감성’으로 개념화하였지만, 동물행동학에서 친자, 부부, 암수 등의 밀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유대(bond)’는 양쪽의 두 사람에게 내재된 고유한 속성이기에 애착과 양육자의 민감성보다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애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애착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Bowlby와 Ainsworth 이후 애착을 어머니와 자녀 양쪽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애착은 두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이며, 특별히 두 사람 사이의 쌍방적 관계이기에, 어머니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정서적 결속만이 애착이 아니라, 어머니 편에서의 자녀에 대한 결속도 애착이라는 것이다(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inde, 1979;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Müller, 1994).

특히 애착의 주요 이론적 토대인 동물행동학과 최근의 동물행동학 이론인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생물학적이며 내재된 결속을 애착이 아닌, 양육자의 민감성과 같은 양육태도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wlby가 어머니 편에서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결속을 애착에서 제외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Bowlby 당시 동물행동학적 접근으로는 자기희생으로까지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물행동학은 Darwin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종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론의 본질은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체는 살아남고, 다른 개체는 사라진다는 자연선택(또는 자연도태, natural selection)개념이다. 개체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진화론과 동물행동학에서는 개체의 생존과 반대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유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새끼와 어미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동물행동학 연구는 주로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보다는 어미에 대한 새끼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졌다(예: Lorenz의 각인연구, Harlow의 “철사엄마”와 “형겉엄마” 실험). 따라서 동물행동학을 주요 이론적 토대로 삼은 Bowlby의 애착연구 역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자연선택에서 선택되는 것은 개체가 아닌 유전자이며, 개체는 유전자가 증식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운반자에 불과하다는 Wilson(1980)의 사회생물학적 접근에서 애착을 바라볼 때, 어

머니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정서적 결속,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생물학적 본능이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착연구가 어머니의 자녀애착은 소외된 채, 자녀의 어머니 애착으로만 진행되어져 온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경험, 특히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는 영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인 애착의 질이 표상을 통해 전생애 동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기존의 단일 방향 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애착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영아애착, 즉 양육자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애착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애착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인식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적 결속으로 인식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소 있다(김기영, 2000; 김봉선, 1994; 신현정·박영주·강현철, 2004; 임숙빈, 1996; 한규은, 2001; Beal, 1991; Becker & Becker, 1994; Bromwich, 1990; 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ock, McBride, & Gnezda, 1989;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이들 연구들은 최근 임상 영역에서 생의 초기에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짐에 따라, 주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태아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신생아 간의 조기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 애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반면 아동학과 같은 인간발달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진

국내의 어머니 애착연구는 유은희와 박성연(1989)이 성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애착 연구가 전생애적 관점으로 확대되어 영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기의 애착관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결국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과 같은 애착의 질적 차이는 바로 처음 애착이 형성되었던 영아기에 이루어진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애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Klaus & Kennell, 1976), 언어발달, 표현능력,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아기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e et al., 1982; Parker & Stevenson, 1982, 방경숙, 2000 재인용).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는 영아에게 있어, 자녀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정서적 결속인 어머니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Bromwich, 1990; Mercer & Ferketich, 1993, 1994).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앞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즉 민감성과 같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애착이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이거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문화마다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관계와 애착 행동 특성을 간과한 채 특정 문화권에서 설정한 측정방법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화마다 애착에 부여하는 가치, 혹은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할 때 설정하는 목표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상호 간의 반응양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insworth의 낯선 상황실험을 통해 영아애착을 비교 문화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 중류층 영아에 비해 독일 아이들은 불안-회피 유형의 비율이 높았고(Grossmann et al., 1985),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불안-회피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불안-저항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Miyake et al., 1985), 이스라엘의 키부츠 영아들도 불안-저항 유형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van IJzendoorn et al., 1992). 실험실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 Q-sort(AQS)를 사용한 비교 문화연구(Posada et al., 1995)에서도 영아의 안전기반 행동이 모든 문화에서 나타남은 문화적 현상이었지만, 안전기반 행동의 세부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안정성 분포도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한국과 중국, 미국 가족을 대상으로 영아기 육아에 대한 문화 간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살펴본 유가호(1995)의 연구에서도 영아기의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된 양육행동과 양육신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애착과 아동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의 문화적 독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애착은 생물학적 토대 위에 형성된 정서적 결속으로서의 부모 자녀 관계이지만, 애착을 구성하는 구성요인 내에 생물학적 보편성과 문화적 독특성이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개념 중 그동

안 도되지 되었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그중에서도 영아(1개월-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척도개발은 척도의 구인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총 5차례의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구인개발을 위해 먼저 예비조사(2회)와 사전조사(1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어머니애착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장소와 약속시간을 정한 후에 실시하였으며, 신생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경우 산후조리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어머니 한 분 당 20-30분 사이였다.

본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의 10개구(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중랑구, 양천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와 인천시,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 등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유의 표집 하였다.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병원(소아과), 백화점, 종교기관,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아강좌와 영아전담 놀이기관 등과 같이 대상연령의 어머니들이 모인 장소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1개월~24개월까지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3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기재되었거나 자녀의 연령이 본 연구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결과, 417부의 자료가 최종 선택되었다.

본조사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영아(1-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연령 범위는 22세에서 42세 까지였으며, 이 중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어머니가 216명(51.8%)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 가장 보편적이었다(64.3%).

어머니의 취업 유형을 살펴본 결과 직장을 나가는 어머니가 165명(39.6%),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252명(60.4%)으로,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취업을 한 어머니 보다 다소 많았다. 또한 취업유형의 경우 사무직(30.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기술자, 전문직의 순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개발과정에 있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를 함께 살펴보았다.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

양육태도척도(MBRI)는 Schaefer가 주도하였던 버클리성장연구(The Berkeley Growth Study)에 의해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동복지(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f Child Welfare)에 참여한 정상아동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출생 직후부터 3년 동안 관찰·개발된 척도이다.

총 28개의 구성개념(상위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무시, 협동성, 어머니의 의존성, 어머니의 사회성, 긍정적 평가, 주부역할 거부, 어머니의 흥분성, 어머니의 사회적 고립, 간섭, 평등주의적 태도, 결혼의 만족도, 자녀를 짐으로 여김, 의존성 조장, 어머니의 근심과 불안, 처벌성, 긍정적 정서 상태, 정서적 개입, 통제 시 엄포사용, 자율성, 지나친 접촉, 엄격성, 어머니의 지적수준 지각, (자녀에 대한)애정표현, 학업성취요구, 의사 소통성, 어머니의 퇴행성, 긍정적 모아관계, 통

표 1. 자료수집 과정 별 연구대상

과 정	목 적		대 상	측정방법	표본 수	
1	척도	예비조사 1	15일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심층면접	12명	
2		구인	예비조사 2	8일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개방형 질문지	34명
3	개발	사전조사	1개월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설문지	35명	
4		척도	본조사	1개월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설문지	417명
5		타당화	재검사	본조사 표본에서 재 표집	설문지	88명

제성 등 이다. 이들 28개의 구성개념은 다시 각각의 하위문항들(4-8개)로 이루어져, 총 154개의 문항들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윤수, 2003 재인용).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자율적인 경향이 강하며, 낮을수록 거부-통제적인 경향이 강하다.

MBRI는 Becker(1964), Mussen과 동료들(1969)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원영(1983)이 각 문항의 하위문항 간 상호상관도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타당도가 확보되어, MBRI는 국내에서 어머니 양육태도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들(김윤수, 2003; 안연경, 2005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BRI의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구성개념과 문항 수가 너무 많고 일부 문항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28개의 구성개념 중 특별히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구성개념(상위문항)인 「무시(5문항)」와 「긍정적 평가(4문항)」, 「자녀를 짐으로 여김(4문항)」, 「정서적 개입(4문항)」, 「애정의 표현(5문항)」, 「긍정적 모아관계(3문항)」 등 6개의 구성개념(상위문항)과 각각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하위문항 25개를 추출하였다. 구성개념과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3인과 어머니 10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5개 하위문항에 대해 나타난 Cronbach의 α 값은 .81이었다.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BRI와 함께 Müller(1994)의 모아애착척도(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MAI)를 사용하였다. Müller(1994)는 다

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MAI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Müller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값은 .85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4점 척도이며 31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31점에서 124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한규은(2001)과 이상미(2003)가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값은 한규은의 연구에서는 .89, 이상미의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의 α 값은 .91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표 2 참조). 먼저 1단계에서는 오늘날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잠재적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애착관련 문헌과 전통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영아(2주-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5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 까지 심층면접과 개방형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단계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측정도구의 척도문항제작과 사전조사 단계로, 먼저 1단계에서 추출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 구인들을정리하였다. 그 결과, 「보호」와 「신체적 접촉추구」, 「긍정적 정서(기쁨, 기대감)」, 「결속(일치성)」, 「온정」, 「희생(헌신)」, 「근접추구/분리불안」등의 7가지 잠재구인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구인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작성은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10인(박사학위 소지자)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 절차

단계	과 정	목 적	방 법	내용 및 비고
1단계	문헌 조사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잠재적 구성개념 파악	국내외 애착관련 문헌과 척도분석	문헌탐색에 의한 구인추출 : 보호, 접촉추구, 긍정적 정서, 결속, 민감성, 근접성(근접추구)
			한국전통문헌 분석	전통문헌분석에 의한 구인추출 : 온정(절대적 보호와 관대함), 희생(헌신), 희생을 넘어서는 긍정적 정서(기쁨, 기대감), 결속(일치성)
	예비 조사		어머니와의 심층면접과 개방적 설문지 실시	면접/설문에 의한 구인추출 : 보호, 희생(헌신), 신체적 접촉 추구, 긍정적 정서, 냉담, 근접추구/분리불안
2단계	척도 문항 제작	1) 예비구인과 예비 문항 구성	예비구인 구성	아동발달 전문가(10인)와 아동관련학과 전임교수(7인)와 논의.
		2) 예비구인과 예비 문항의 적절성 논의	1차 예비문항 구성(101문항) 2차 예비문항 구성(60문항)	
	사전 조사	척도문항의 난이도와 적절성 검증	어머니(35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60문항) 사용.
3단계	본조사	본조사	어머니(417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척도타당화 과정에서 어머니애착 구인(8요인)과 문항(50문항) 추출.
4단계	재검사	재검사	어머니(88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본조사 연구대상 중 88명을 재 표집하여 재검사 실시.

1차적으로 작성된 예비문항(101문항)은 다시 전문가들(아동발달 관련학과 교수 7인)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표현이 중복되었거나 모호한 문항들을 검토하여 6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머니(35명)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사전조사 시 척도문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아, 60문항을 어머니 애착 척도 예비문항으로

정하였다.

3단계는 본 조사단계로,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조사 결과 총 50문항이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으로 추출되었다. 본 조사에서 추출된 어머니 애착척도는 MBRI와 MAI와의 공인 타당도와 함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재검사

단계로서, 2005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본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한 어머니 중 88명의 어머니들에게 다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질문지를 배부·수거 하였다.

자료분석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측정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s α 와 반분검사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구하였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타당도는 전문가들의 문항내용 분석을 통한 내용타당도(cont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와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타당도(construc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그리고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타 검

사도구와의 관계성을 살펴 본 공인타당도(concurr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를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먼저 척도문항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총점과 개별 문항 간 상관, 그리고 척도화 분석에서 개별 변수와 그 변수를 제외한 척도와의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을 살펴보았다.

또한 Kaiser-Meyer-Olkin(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석 중 주축요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다. 위에 제시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방법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내적일관성 신뢰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s α
	반분검사 신뢰도 split-half reliability	반분검사 신뢰도계수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 * 본 검사 실시 3주 후 재검사 실시
타당도	내용 타당도 cont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와 전공교수(총 17인) - 척도의 하위구인과 문항의 적절성 논의.
	구인 타당도 construc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탐색적 요인분석 :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직교모형(Varimax 방식)
	공인 타당도 concurr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MBRI와 MAI와의 상관계수 (1) Schaefer의 양육태도척도: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2)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 : MAI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III. 연구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와 반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 값을 구한 결과 .94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으며, 척도의 문항을 반분하여 이들 점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반분신뢰도는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재검사는 본조사 실시 3주 후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어머니 애착 척도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타당도

내용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 전문가(박사학위 이상) 10인과 관련학과 전임교수 7인, 연구방법 전문가 1인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 받았다. 전문가집단에서는 먼저 문헌연구(애착관련문헌, 한국전통문헌)와 2차에 걸친 예비조사(심층면접, 개방형 질문지) 과정, 그리고 이들 과정을 통해 추출된 어머니 애착 잠재구인과 예비문항(101문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어머니 애착에 대한 개념정의와 구성요인의 적절성과 대표성 등을 보완·검증하였다. 전문가들과의 협의 하에 구성된 요인과 문항은 1개월-24개월 영아의 어머니들(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도 적절

표 4.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신뢰도

	반분 신뢰도 N=417	Cronbach' α N=417	검사-재검사 신뢰도 N=88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88	.94	.92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에게 각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문항 적절성과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척도문항에 대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타당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1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 설명 분산은 63.19%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시 요인의 수는 일반적으로 스크리 검사와 누적 분산비율, 그리고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허경옥 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기준들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8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8로 지정한 후, 요인 구조를 산출하였다. 직각회전(Varimax) 결과, 이들 8요인의 설명 변량은 49.27%로 나타났다. 산출된 요인 구조와 요인 부하량은 요인별로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들 요인 별 문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1요인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지며,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내 아이가 소중한며, 사랑스럽다는 문항들에 나타나 있듯이, 1요인은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잠재적 구성개념에서 명명한 「긍정적 정서」에 해당된다.

표 5. 어머니 애착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 고유치 및 설명분산(50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h^2
		1	2	3	4	5	6	7	8	
37.	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701	.298	.119	.018	.137	.079	.121	.161	.687
38.	내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694	.250	.173	.067	.069	.084	.014	-.009	.620
40.	내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654	.229	.279	.130	-.013	.109	.136	.222	.691
36.	나는 아이의 외모와 관계없이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	.629	.104	.079	.200	.139	.163	-.029	-.022	.574
35.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하다.	.608	.185	.072	.048	.199	.044	.260	.364	.741
34.	나는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607	.239	.117	.031	.177	.053	.184	.345	.733
42.	내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즐겁다.	.560	.115	.233	.130	.038	.191	.164	.156	.603
44.	내 아이 또래의 다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내 아이가 생각난다.	.556	.105	.193	.317	.017	.163	.111	-.145	.565
33.	나는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	.482	.217	.043	.171	.137	.086	.205	.431	.632
41.	내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459	.162	.392	.103	.120	.107	-.090	.105	.499
43.	좋은 물건(장난감, 옷, 아이용품)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이 생각이 난다.	.434	.067	.168	.341	.119	.184	.146	.064	.532
16.	나는 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길 좋아한다.	.226	.764	.109	.157	.140	.220	.028	-.033	.744
18.	나는 내 아이와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086	.712	.212	.120	.212	.228	.061	.137	.710
15.	나는 아이에게 뽀뽀해 주는 것을 즐긴다	.281	.705	.071	.143	.032	.057	.152	.087	.669
17.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229	.683	.272	.044	.166	.106	.102	.098	.659
14.	나는 아이를 안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175	.652	.149	.206	.016	.108	.165	.081	.608
19.	나는 내 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179	.613	.146	.239	.157	.180	.031	.149	.623
20.	나는 내 아이의 미소에 행복감을 느낀다.	.372	.509	.106	.136	.102	.099	.120	.106	.552
45.	내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도 예쁘다.	.290	.157	.569	.025	.058	.065	.086	-.004	.550
46.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아이에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109	.210	.533	.101	.215	.162	.090	.017	.487
26.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246	.168	.504	.084	.204	.073	.061	.249	.498
24.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다.	.299	.123	.483	.322	.107	.127	-.001	.146	.571

표 5. 계속

번호	문항 내용	요인								h^2
		1	2	3	4	5	6	7	8	
23.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면 일어난다.	.245	.166	.403	.400	.054	-.005	.115	.009	.469
55.	아이가 기운이 없으면 나도 속상하고 우울하다.	.245	.150	.368	.167	.161	.083	.279	-.002	.418
21.	나는 내 아이의 대변도 예뻐 보인다.	.250	.346	.355	.257	.149	.144	.018	.154	.560
22.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250	.126	.355	.148	.205	.107	.157	.077	.580
53.	나는 내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228	.231	.328	.258	.134	.059	.322	-.001	.472
28.	아이로 인해 내 삶이 영망이 된 것 같다.	-.007	-.075	-.325	.078	.001	.016	-.243	-.177	.383
7.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된다.	.103	.086	.058	.629	.327	.010	.050	.053	.519
13.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생각을 자주 한다.	.042	.322	.197	.611	.240	.092	.151	.149	.610
9.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 생각에 가능한 빨리 오려고 노력한다.	.073	.150	.060	.543	.264	.054	.078	.089	.438
10.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다.	.186	.250	.093	.529	.099	.006	.136	.104	.492
3.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혼자 놀이할 때에도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자주 살펴보곤 한다.	.126	.012	.155	.213	.685	.116	.121	.028	.577
2.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도, 아이의 필요를 우선해 준다.	.028	.155	.170	.155	.653	.036	.100	.111	.511
4.	나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 눈 으로 확인한다.	.158	.039	.138	.236	.625	.156	.248	-.001	.590
1.	나는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이 가장 많이 간다.	.121	.175	.067	.142	.447	.063	.032	.114	.476
5.	내 식사 보다 아이 식사(이유식, 우유) 준비에 더 신경이 쓰인다.	.079	.237	.187	.173	.433	.069	.114	-.000	.407
58.	옹알이나 말소리에 같이 반응(응답) 해준다.	.228	.228	.119	.054	.196	.688	.164	.057	.644
52.	아이와 나는 한 몸 같이 느껴진다.	.176	.097	.073	.277	.173	.673	.061	.249	.577
59.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162	.289	.124	.085	.069	.673	.046	-.009	.548
57.	나는 나 아이의 미소에 같이 반응(응답) 해준다.	.280	.285	.163	.069	.188	.480	.179	.188	.599
60.	나는 내 자신이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264	.229	.119	.214	.095	.380	.186	.203	.526
54.	여러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아이(모습이나 울음소 리)는 금방 알 수 있다.	.224	.115	.256	.311	.120	.342	.092	.064	.499

표 5. 계속

번호	문항 내용	요인								h^2
		1	2	3	4	5	6	7	8	
50.	솔직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264	-.180	.007	-.101	-.149	-.072	-.614	-.036	.480
49.	나는 내 아이에게 무관심한 편이다.	-.111	-.159	-.106	-.123	-.145	-.090	-.613	-.143	.456
48.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땐, 솔직히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	-.054	.030	-.278	-.104	-.136	-.100	-.379	-.020	.430
51.	피곤할 땐,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036	-.160	-.260	-.030	-.128	-.173	-.364	-.012	.405
32.	나는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346	.128	.096	.170	.040	.057	.067	.467	.522
31.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190	.171	.307	.238	.117	.088	.131	.477	.518
30.	내 시간에 있어 아이와 관계된 일이 가장 우선 순위이다.	.103	.212	.275	.301	.273	.136	-.024	.342	.512

2요인은 총 7문항으로, 아이의 눈을 들여다 보길 좋아하고, 아이와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며,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을 즐긴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잠재적 구성개념에서 명명한 「접촉추구(접촉을 즐김)」와 일치한다.

3요인은 10문항으로,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도 예쁘고,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에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온정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온정은 단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면 일어나며,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어머니의 자기희생적이며, 절대적인 따뜻함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절대적인 온정을 본 연구에서는 「자기희생적 온정」으로 명하였다.

4요인은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 지 걱정되고, 아이 생각을 자주하며, 아이 생각에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보고 싶다는 문항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하고 빨리 아이가 보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잠재적 구성개념에서 명명한 「근접추구(분리불안)」에 해당되어지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요인은 총 5문항으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잠재적 구인들 중 아이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혼자 놀이할 때에도 자주 살펴보고,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에라도 아이의 필요를 우선하며, 집안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문항들이다. 또한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내 식사 보다 아이 음식 준비에 신경이 더 쓰인다. 이러한 5요인은 본 연구의 잠재적 구성개념들 중 「보호」와 동일하였다.

6요인은 6문항으로 잠재적 구성개념들 중에서 「결속(일치성)」과 일치하였다. 아이와 한 몸 같이 느껴지고, 아이의 웅얼이나 말소리에 같이 반응하며, 아이의 미소에 함께 반응하여 주고, 여러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아이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즉 어머니와 아이와의 결속(일치성)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이다.

7요인은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고, 무관심하며, 피곤할 땐 아이가 귀찮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 「냉담」의 개념이 4문항으로 새로이 묶여졌다.

8요인은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며,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된 「기대감」요인으로, 3문항이다. 「기대감」요인은 전통문헌 분석 시 한국의 전통적인 애착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머니 애착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정서」와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분리불안)», 「보호」, 「결속(일치성)», 「냉담」, 그리고 「기대감」등의 8요인이 추출되었다.

다음은 구인타당도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에서 추출된 8가지 구성요인의 요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

이 총점과 하위구인 점수와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타당도는 절대값 .51에서 .87 사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과정에서 추출된 8가지 하위구인들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하위구인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적절히 설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하위구인 중 「냉담」요인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총점과 부적 상관(-.51)이 나타남으로써, 어머니 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 2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상관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MBRI) 보다 모아애착 척도(MAI)와 높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MBRI)와 모아애착 척도(MAI)의 상관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AI의 상관 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표 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요인타당도 (N=417)

	긍정적 정서	접촉 추구	자기희생 적 온정	근접 추구	보호	결속 (일치성)	냉담	기대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총점	.82***	.77***	.87***	.75***	.66***	.74***	-.51***	.70***

*** $p < .001$

표 7.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BRI, MAI와의 상관관계 (N=417)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MBRI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	.51***	
모아애착 척도(MAI)	.79***	.48***

*** $p < .001$

척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와는 구별되는 애착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임을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기존의 자녀 중심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특별히 한국어머니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1요인 「긍정적 정서」, 2요인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3요인 「자기희생적 온정」, 4요인 「근접추구(분리불안)」, 5요인 「보호」, 6요인 「결속(일치성)」, 7요인 「냉담」, 그리고 8요인 「기대감」 등 총 8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들을 토대로 어머니 애착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주 양육자에 대한 영아애착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정서적 결속(애착)이라는 공통의 특성과 함께 서로 구분되어지는 하위요인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접촉추구」와 「근접추구(분리불안)」요인은 어머니 애착과 영아애착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인이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은 영아애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 애착의 독특

한 구성 요인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소원이 잠 한번 폭 자보는 것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영아를 양육하는 것은 주 양육자, 즉 어머니의 커다란 희생을 매개로 한다. 어머니의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머니는 영아를 양육하는 데 24시간 매달린다. 영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기에, 시대나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보호를 유발하는 특성(근접추구, 분리불안, 울음, 미소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영아의 주 양육자에 대한 이러한 내재화된 특성을 Bowlby는 영아의 애착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이러한 영아의 보호적 기능이 영아애착의 주요 구성개념이라면, 어머니 애착의 주요 구성개념은 내 자녀를 통해 느끼는 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며,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내 아이가 소중하며, 사랑스럽다는 문항들에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자녀양육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희생이나 고통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기쁨의 정서이다. 이 기쁨은 전통 문헌 분석에서도 전통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의 주요 구성개념 중의 하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으며, 이것은 주 양육자가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과 희생을 넘어설 정도의 큰 정서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구성하는 가장 큰 1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영아에 대한 한국 어머니 애착을 나타내는 구성요인은 서구의 애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희생적 온정」요인과 「기대감」요인은 전통문화 분석에서는 애착 구성개념으로 나타났으나, 서구에서 개발된 애착 척도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기희생적 온정」은 어머니 애착의 구성개념 중의 하나인 「보호」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호가 아이의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관심이라면 온정은 어머니의 보다 따뜻한 보살핌이다. 또한 이 온정은 단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일어나며,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어머니의 자기희생적이며, 절대적인 따뜻함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절대적인 온정을 본 연구에서는 「자기희생적 온정」으로 명하였다.

영아의 발달 특성 상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어린 자녀의 양육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다. 그러나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머니 자신이 피곤하고 지쳐도, 그리고 양육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힘들어도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강렬한 자기희생적 온정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 자녀에게 나타내는 절대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온정은 서구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이상이다.

이 「자기희생적 온정」은 전통문화 분석에서도 도출되어진 어머니 애착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영아기에 해당하는 유아기(乳幼兒期)의 자녀에 대해 약하고, 어리

고, 깨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여, 어린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보호와 관대함이 특징이었다. 전통문화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어머니의 자기희생적 온정은 특별히 아이가 아플 때에 더 절실하게 표현되었다. 아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하고, 아이의 고통을 차라리 대신 하기를 바랄 정도로 아이의 아픔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는, 이러한 「희생적 온정」은 오늘날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과의 면접에서도 나타남으로써, 오늘날까지의 어머니 애착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며,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대감」요인 또한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전통적인 애착 구성개념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자녀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어 대하였으며, 특히 아들을 처음 만날 때에는 점을 쳐서 길한 사람(吉士)이 아이를 안고 또한 활쏘기를 맡은 사람이 하늘·땅·동·서·남·북의 방향으로 6번 쏘았다. 이는 아이가 커서 원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아이에 대한 존중과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이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애정의 대상인 서구사회와는 다른 애착개념으로, 전통사회에서 아이는 “사랑스럽다”, “예쁘다”는 애정의 대상 이전에 집안과 가문을 이어갈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 따라서 서구의 애착과는 다른 구성개념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생물학적 토대 위에 형성된 범문화적이며 보편적인 정서적 결속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Grossmann et al., 1985; Miyake et

al., 1985; Posada et al., 1995;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들을 지지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는 일련의 신뢰도와 타당화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와 반분 신뢰도,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의 모든 신뢰도검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88~.94), 특히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가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행동 측정이 아닌, 어머니의 애착태도 측정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애착태도는 어머니 개인과 그리고 어머니가 속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과 신념이 내재됨으로써, 지속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기숙 외, 2004 재인용). 문화적 가치관과 신념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정화되어짐으로써(유가호, 1995), 상황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착태도를 통해 어머니 애착을 측정한 본 척도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의 타당도를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 그리고 공인타당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 등 2가지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와

의 상관(.7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인타당도는 척도점수와 기존의 타당성을 입증 받은 척도점수와 유사성과 연관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는 방법이다. 공인타당도 계수가 .8이상이면 그 척도는 타당도가 있다고 한 Kubiszyn과 Borich(1993)의 주장(성태제, 1998 재인용)을 토대로 할 때,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의 상관이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 그 수치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와의 상관과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MBRI)와 모아애착 척도(MAI)의 상관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AI의 상관 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와는 구별되는 애착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애착과 모의 양육태도가 유사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다른 개념의 척도임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 애착 척도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양육태도(양육자의 민감성) 중의 하나로 개념화 하였던 기존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어머니에게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정서적 결속으로, 양육태도와는 구별된 <애착>임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서구의 애착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한국적 하위구인이 추출됨으로써, 애착에 있어 문화적 독특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표집 과정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표집이 아닌, 서울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른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어머니 애착 척도의 요인 타당도 과정에서 요인분석 후 하위구인과 문항을 추출할 때, 일부 문항은 고유치가 하나 이상의 요인들에 높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해석 시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개인차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애착은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의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 개념임이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개인차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정적 구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기에, 다음 연구에서는 냉담과 같이 부정적 구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앞으로의 다양한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과 함께 척도개발과정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과정의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에서 밝혔듯이, 어머니 애착의 하위구인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에 대한 한국어머니의 애착이 높다는 해석과 동시에, 척도의 선별적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어머니 애착에 대한 척도개발이기에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점차 검증되어지겠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의 원인은 무엇보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월령만을 고려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

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과 지역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이 고려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넷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취업이 점차 보편화되어지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은 시대적인 흐름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24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이 40%를 육박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영아애착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에 대한 영아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아직 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이 영아 애착 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형성되어지기에, 어머니의 취업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어머니 애착과 한국어머니의 애착은 동질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 애착의 모든 개념이 서구적 개념만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과 애착은 문화 마다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애착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 할 때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앞으로 이루어질 다양한 애착 척도개발과 애착연구에 있어 문화적 보편성과 독특성이 고려되고, 우리의 삶과 현실적 문제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기영 (2000). 태교관점 임부교실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선 (1994). 산욕기 초기산모의 영아돌보기 지식 및 모아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수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발달수준의 차이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경숙 (2000). 영아기 어머니 역할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신현정, 박영주, 강현철 (2004). 산욕기 어머니의 모아애착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4(3), 504-514.
- 안영경 (2005). 유아의 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가호 (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95년 춘계학술대회,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방향 모색」.
- 유은희,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이기숙, 박은혜, 김희진, 김현정 (2004). 우리나라 유아의 하루일과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3), 163-188.
- 이상미 (2003).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어머니의 신생아지각과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빈 (1996).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규은 (2001). 모성 자존감 및 모성 민감성과 모아 애착과의 관계.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7). Infant crying and maternal responsiveness: a rejoinder to Gewirtz and Boyd. *Child Development*, 48, 1208-1216.
- Beal, J. A. (1991). Methodological issues in conducting research on parent-infant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 11-15.
- Becker, G. & Becker, C. (1994) The maternal behavior inventory: measuring the behavioral side of mother-to-infant attachmen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2), 177-194.
- Bee, H. L., Barnard, K. E., Eyres, S. J., Gray, C. A., Hammond, M. A., Spietz, A. L., Snyder, L., & Clark, B. (1982). Prediction of IQ and language skill from prenatal status, child performance, family characteristic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3, 1134-1156.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Psycho-Analyses*, 39,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 Y.: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 Y.: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2th* (Vol.1). *Attachment*. N. Y.: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omwich, R. M. (1990). The interaction approach the early interven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 66-79.
- Carter-Jessop, L. (1981). Promoting maternal attachment through prenatal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6, 107-112.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 281-284.
- Cranley, M. S. (1992). Response to "A critical review of prenatal attachment research."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6, 23-26.
- Fuller, J. R. (1990). Early patterns of maternal attachment.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1, 433-446.
- Grossman, K., Grossma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33-256.
- Hinde, R. A. (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ships*.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Hinde, R. A. (1982). *Ethology: Its nature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sciences*.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ock, E., McBride, S., & Gnezda, M.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Klaus, M. H. & Kennell, J. H. (1976). *Maternal infant bonding - The impact of early separation or loss on family development*. St. Louis MI: C. V. Mosby.
-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 198-204.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0). Predictors of parental attachment during early parent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268-280.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3). Predictors of parental attachment during early parent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268-280.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4). Maternal-infant attachment of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mothers during infancy. *Nursing Research*, 43(6), 344-351.
- Miyake, K., Chen, S. J., & Campos, J.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An interim repor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76-297.
- Müller, M. E. (1993). The development of the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Western Journal*

- of *Nursing Research*, 15, 199-215.
 - Müller, M. E. (1994). A questionnaire to measure mother-to-infant attach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2(2), 129-141.
 - Posada, G., Waters, E., Crowell, J. A., & Lay, K. (1995). Is it easier to use a secure mother as a secure base? Attachment Q-sort correlates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 model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 Schaffer, H. R., & Emerson, P. 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 3, Serial No. 94.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an IJz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 J. (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Wilson, E. D. (1980). *Sociobiology*. M. A.: Havard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6.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6. 08. 22.
최종게재결정 : 2006. 09. 05.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Hyun Joo Hwang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mother's Attachment Inventory (KMAI).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7 mothers resid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The KMAI items were identified from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interview of Korean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explanatory factor analy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the KMAI developed appropriately measures the modern Korean mother attachment to her infant, (b) the factor that best represented the KMAI was positive emotions, and (c) Two factors that constitute the KMAI, self-sacrificing generosity(warm care)and expectations, did not appear in research or scales of the western society. The investigation is significant in that though it derived from the research on the attachment of the child towards his/her main caregiver,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at of the mother towards her child, which had been neglected thus far. It is true that attachment i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s a pan cultural and universal emotional unity formed on top of a biological basis however, biological universality and cultural individuality exist together within the factors that constitute attachment. Put differently, attachment is a biological trait inherent in all of mankind, but the specific expressions of such attachment show som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culture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related to child rearing practices.

Key word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MAI, maternal attachment, reliability, validity